

보도자료

제목	2018 랜덤 액세스 Vol.1 《셀피-업로드 <i>Selfie-Upload</i> 》		
문의	- 전시문의 : 김선영(t. 031-201-8552, m. 010-4665-9290) - 취재문의 : 강연섭(t. 031-201-8559, m. 010-2906-1746)		
자료	이메일에 기재된 링크로 다운로드		
배포	2018. 8. 23.	쪽수	총 4매

2018 랜덤 액세스 Vol.1

《셀피-업로드 *Selfie-Upload*》



- ▶ 백남준아트센터, 미디어 아트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기존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권력/위계를 해체하는 '2018 랜덤액세스 프로젝트' 가동
- ▶ 즉흥성, 비결정성, 상호작용, 참여 등을 키워드로 신진 작가들의 생각과 열정에 임의 접속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
- ▶ 2018년 8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2018 랜덤액세스 프로젝트'의 첫 시작으로 김가람 작가의 《셀피-업로드》 퍼포먼스와 연계 아카이브 전시 진행
- ▶ 김가람 작가, SNS 미디어에 업/다운되며 매분매초 변화하는 이슈들을 엘리베이터 라는 공간을 사용하여 유희적인 실험으로 선보여, 1인 미디어 시대 우리의 소통방식에 대한 공감의 여지 제공

■ 《셀피-업로드 *Selfie-Upload*》 전시 및 퍼포먼스 개요

- 전 시 명 : 셀피-업로드 *Selfie-Upload*
- 오프닝 : 2018년 8월 24일 (금) 오후 5시 (장소 : 1층 로비)
- 전 시 :
 - 일시 : 2018. 8. 24(금) ~ 9.26(수)
 - 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1층 메자닌 스페이스
- 퍼포먼스 :
 - 일시 : 8월 24일 : 17시(오프닝)
8월 26일 : 10시30분 / 14시
9월 1일 : 10시30분 / 14시
9월 2일 : 10시30분 / 14시
 - 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엘리베이터
- 참여작가 : 김가람
- 주최주관 :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
- 협 찬 : 세크

■ 《셀피-업로드 *Selfie-Upload*》 퍼포먼스 일정

- 제 목 : 셀피-업로드 *Selfie-Upload*
- 일 시 : 8월 24일 17시(오프닝)
8월 26일 10시30분, 14시
9월 1일 10시30분, 14시
9월 2일 10시30분, 14시
- 장 소 : 백남준아트센터 엘리베이터
- 대 상 : 일반 관람객 누구나
- 신청방법 : 사전 온라인 예약(10명)
(백남준아트센터 홈페이지: <http://njp.ggcf.kr/>) *현장접수 가능
- 참여방식 : 사전 예약자는 퍼포먼스 참여 우선권인 패스트 블루티켓 선착순 지급
*예약한 시간보다 15분 이상 늦게 오시면, 티켓 우선권은 소멸되며 현장 선착순으로 순서가 변경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 가 비 : 무료
- 문의 : sykim@npartcenter.kr

I. 랜덤 액세스 프로젝트 소개

백남준아트센터(관장 서진석)는 젊은 작가들을 위한 공간이 되기를 원했던 백남준의 바람을 구현하기 위해 백남준의 실험적인 예술정신을 공유하는 신진작가들을 소개하고 동시대 미디어 아트 동향을 살펴보는 랜덤 액세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2010년과 2015년 그룹전으로 진행되었던 형식을 바꾸어 이음-공간, 메자닌 등 아트센터 곳곳에서 젊은 작가들과 임의접속 할 수 있는 새로운 포맷으로 앞으로 매년 관객들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본 프로젝트 제목은 백남준의 <랜덤 액세스>에서 비롯하였는데 <랜덤 액세스>는 백남준의 첫 개인전 《음악의 전시: 전자 텔레비전》(1963)에서 선보였던 작품의 제목으로 오디오 카세트의 테이프를 케이스 밖으로 꺼내 벽에 임의로 붙이고, 관객이 금속 헤드를 자유롭게 움직여 소리를 만들어내게 했던 작품이다. 백남준의 <랜덤 액세스>처럼 즉흥성, 비결정성, 상호작용, 참여 등의 키워드로, 올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2018 랜덤 액세스 프로젝트는 김가람, 무진형제 등의 작가들의 작업을 소개하고 관객과 함께 삶의 좌표를 찾아보는 실험을 시작하고자 한다.

II. 랜덤 액세스 Vol.1 김가람 《셀피-업로드》 소개

2018 랜덤 액세스 프로젝트의 첫 시작으로 김가람의 《셀피-업로드》 퍼포먼스와 아카이브 전시를 진행한다. 작가는 설치 및 퍼포먼스, 미디어 작업 등을 통해 문화·사회적 이슈를 관객 참여적 형식으로 이끌어 내어,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관점을 나눌 수 있는 예술적 기회를 제공한다.

<셀피-업로드>는 엘리베이터라는 공간이 갖는 특성과 SNS에 대해 생각해보며 엘리베이터걸의 안내에 따라 셀피를 찍고 SNS에 업로드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이다. 이 작업은 어떤 행위만큼 그 행위를 하는 개인을 드러내는 것 또한 중요해진 1인 미디어 시대에 개인의 표현과 스마트폰, SNS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한 탐구에서 시작되었다. 감시와 달리, 스스로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힘을 가지게 된다. SNS에서 개인은 이렇게 스스로를 드러냄으로서 힘의 타임라인을 만든다. 대중 속 개인을 드러내는 표현과 소통의 수단이 되었으며, '보는/보이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작가는 SNS 미디어에 피드가 업/다운되며 매분매초 이슈가 바뀌고, 누구나 존재하다가도 존재하지 않게 될 수 있으며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SNS 속 세상을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는 공간 변화에 착안하여, 스스로 엘리베이터걸로 분하고 관객을 셀피의 세계로 초대한다.

위/아래로 오르내리며 층과 층, 장소와 장소를 연결하는 장치이며, 연결되어 있다가도 밀폐되기도 하는 엘리베이터에서 안에서 안내에 따라 셀피(특별한 순간의 기록/일상의 기록/자기 표현의 수단)를 찍고 SNS에 올리면서, 1인 미디어 시대에 우리의 소통과 표현은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는지, 그리고 일상이 된 셀피, 스마트폰, 그리고 SNS 미디어의 작동방식과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한편 메자닌에서 함께 진행되는 전시는 <셀피-업로드> 퍼포먼스의 아카이브 전시로 이번 퍼포먼스 작업을 위해 시각디자인과 의상, 퍼포먼스에 대한 자료 등 작가가 생산한 다양한 아카이브를 살펴볼 수 있다.

■ 작가 소개



김가람, <#SELSTAR>, 2017 (사비나미술관 제공)

김가람은 이화여자대학교 회화·판화(서양화)과를 졸업한 뒤, 2011년 런던 첼시예술대학에서 순수미술로 석사과정을 마쳤다. 작가는 각 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문화·사회적 이슈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낸다. 이로 인해 야기되는 변화와 차이점을 설치, 퍼포먼스, 미디어 매체를 사용하여 유희적인 실험으로 풀어내면서 감상자에게 공감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 관람안내

- 관람요금: 무료
-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7~8월: 오전 10시 ~ 오후 7시)
※ 입장은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입니다.
- 휴관일: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